

고영창 “KIA 가을야구 가는 길 징검다리 놓겠다”

핫 플레이어

양현중 공백에 마운드 최고참 투심 잘 던져 별명도 ‘고투심’ 공 위력 더하러 커브 맹훈련 코치진, 집단 마무리 일원 검토 “타자 잡아내는데 집중할 것”

KIA 타이거즈 ‘투수 최고참’ 고영창(32)이 빛나는 조연으로 승리를 잇기 위해 뛰었다. 양현중이 ‘빅리그’ 도전을 위해 떠나면서 올 시즌 KIA 마운드의 ‘만형’은 고영창이 됐다. 팀의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2019년과 달리 지난 시즌 기대에 부응했던 성적을 냈던 만큼 개인·팀으로도 고영창의 어깨가 무겁다. 고영창은 “아직 시즌 시작 안 해서 최고참이라는 부담은 없는데 후배들이 현종이 형의 자리를 메꾸려고 더 땀 흘려 뭉쳐서 하려는 것 같다”며 “89동기가 많다. (나)지완이 형이 주장이 됐는데 우리 애들한테 더 솔선수범해서 이끌어주라”고 이야기했다. 주장이 하라니까 역할 잘해야 한다”고 웃었다.

고영창은 올 시즌을 위해 지난 시즌 실패를 돌아보고 있다.

고영창은 “2019년에 시즌 처음 풀 타임을 뛰면서 초반에 힘도 있었고 생각 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잘됐다. 상대도 고영창이라는 투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생소한 볼에 많이 당했다”며 “지난해에는 상대가 어떤 유형의 투수라는 것도 알고 힘이 많이 없었다. 구속도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고영창은 동료들 사이에서 ‘고투심’으로 불릴 정도로 투심이 좋은 투수다. 지난해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투심’은 고영창의 운명이다.

고영창은 투심의 위력을 키우기 위해 커브를 더하고 있다.

고영창은 “투심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 다른 변화구를 섞어서 던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커브를 준비하고 있다. 신인 때 주무기로 던졌는데 팔꿈치가 안 좋아서 구사를 안 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써보겠다(웃음)”며 “동기(김민식·백용환)들이 포수로 있다 보니까 조연을 많이 해준다. 둘 다 커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줬다”고 설명했다.

현재 완성도는 70~80%정도. 컨트롤을 잡으면서 강하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커브를 던진 고영창은 생각은 줄일 계획이다. “너무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고영창은 “팬들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결과에 신경이 많이 쓰였다. 무조건 주자를 막아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됐던 것 같다. 마음 편하게 내 공 던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운드의 최고참이 됐지만 1군에서 본격적인 시즌을 보낸 것은 지난 2019년이 처음이다. 고영



KIA 타이거즈의 투수 최고참 고영창(왼쪽에서 두 번째)이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창도 후배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다.

고영창은 “지난 2년 하면서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 나이가 많다고는 하지만 프로 1군에서 2년 했으니까 앞으로 더 나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젊은 후배들과 살다 보니 나도 젊어지는 것 같다(웃음). 내가 어렸을 때는 선배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말도 못 걸었다. 요즘 후배들은 어떻게 그립을 잡고 던지는지 알려주려고 자신 있게 물어본다. 영입비밀이지만 한번 던져보라고 알려주기도 하는데 곧잘 한다. 우리 때는 못했던 것들인데 멋있기도 하고, 후배들 떠받치고 살고 있다”고 웃었다.

지금 컨디션은 걱정이 될 정도로 좋다. 정명원 투수 코치도 ‘집단 마무리’의 일원으로 고영창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고영창은 주연보다는 꼭 필요한 조연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고영창은 “코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감사하다. 땅볼 유도해서 병살 잡는 게 내 임무인 것 같다. 누가 마무리로 나설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잘 나누는 게 내 임무다”며 “마무리가 편하게 던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하고 싶다. 주자 안 들어보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올해는 타자에 집중하면서 타자만 보고 잡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 데이터 측정장치로 ‘강한 타구’ 만들기

타자 타격시 비거리·발사각 불펜 피칭 팬 공 회전 속도 기록 윌리엄스 감독 “수치, 전력 활용”

KIA 타이거즈가 데이터를 통해 더 강해진다. 타격 훈련이 진행되던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 전광판에 낫선 숫자들이 표시됐다. 타자들의 타격에 맞춰 비거리와 발사각 등이 표출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챔피언스필드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KIA가 측정장치를 활용해 타격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플라이트스코프를 통해 타구를 측정하는 KIA는 불펜 피칭 때는 랩스도를 활용해 공의 회전 속도 등을 기록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24일 “(전날)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다. 이런 데이터는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캠프 진행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투수, 타자가 이용할 수 있게 다듬고 있다. 타자들은 타구 속도, 발사각 등을 알 수 있



다. 너무 많은 정보 위주가 아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치를 통해 선수들이 직접 차이를 느끼고,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강한 타구”를 강조하고 있는 윌리엄스 감독은 이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격이라는 게 최대한 강한 타구를 만들어서 수비가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라며 “타구 속도라는 것은 발사각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발사각도가 내려가면 타구

속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시스템으로 측정되는 ‘절대적인’ 수치를 이야기했지만, 선수들에 맞춘 ‘상대적인’ 적용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 선수에 맞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고 있다.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야구는 똑같은 선수가 없다는 것이 매력이다. 데이터는 이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우즈,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 선수 생명 최대 위기

차량 전복돼 오른쪽 다리 복합 골절...CNN “최악의 골프 경력 끝날수도”

차량 전복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미국의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응급 수술을 마쳤다.

우즈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1등급 외상 치료 병원인 하버-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학(UCLA) 의료센터에서 장시간 수술을 받았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의료센터 최고 책임자인 아니시 마하잔 박사는 우즈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즈의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이 산산조각이 나며 부러졌으며 정강이뼈에 침침을 꽂아 부상 부위를 안정시켰다고 밝혔다.

또 발과 발목뼈는 나사와 핀으로 고정했고, 상처 부위의 붓기도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우즈 재단도 성명에서 우즈가 수술 후 깨어났고,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우즈는 차량 전복 사고 직후 현장에서 9마일

(14.4km) 떨어진 하버-UCLA 의료센터로 이송돼 몇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AP통신은 “우즈의 골프 선수 경력은 (부상을 이겨낸) 놀라운 복귀로 가득 차 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든 회복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23일(현지시간) 오전 7시 12분께 LA 카운티에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SUV를 몰다 전복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찰에 따르면 우즈가 몰던 SUV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여러 차례 구르며 반대편 차선의 연석과 나무 등을 들이받았고, 도로에서 9m 떨어진 비탈에서 멈췄다. 경찰은 우즈가 사고 당시 과속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비야누에바 보안관은 “정상 속도보다 비교적 더 빠르게 달린 것 같다”며 차량 급제동의 흔적은 없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내리막길에 곡선 구간”이

라며 “이 도로는 사고 빈도가 높은 곳”이라고 전했다.

우즈는 최근 5번째 허리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를 당했다.

그는 작년 12월 PGA 이벤트 대회인 PNC 챔피언십에 아들 찰리와 함께 팀을 이뤄 출전한 뒤 허리 수술을 받았고, 골프 대회 출전도 보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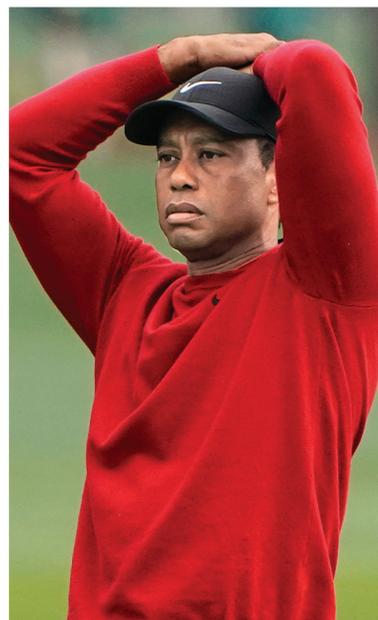
그는 최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주최자 자격으로 LA를 방문했고, 이 대회에 선수로 뛰지는 않았지만 시상식에 참석했다.

LA 체류 기간 그는 데이비드 스페이드, 드웨인 웨이드 등 유명 연예인과 농구 선수에게 골프 레슨을 해주는 골프TV 프로그램 촬영 일정을 진행했다.

CNN 방송은 우즈가 겪은 부상과 수술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최악의 경우 우즈의 골프 경력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FP통신도 “우즈의 놀라운 골프 선수 생활이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김광현 ‘달라진 위상’

STL 감독 “항상 선발 준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2년 차인 왼손 투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위상이 1년 만에 달라지게 됐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24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진행 중인 스프링캠프 훈련을 마치고 “김광현은 올해 항상 선발 로테이션에서 뛰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언했다.

김광현은 지난해 마무리 투수로 빅리그 데뷔전을 치러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이후 7경기는 모두 선발로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62의 좋은 성적을 남겼다.

선발로서 성공 가능성을 지켜본 세인트루이스는 올해엔 김광현이 더 많은 이닝을 선발 투수로서 던져주길 기대한다고 MLB닷컴이 전했다.

김광현은 짝 플래티어, 애덤 웨인라이트 다음으로 뛰는 3선발 투수로 거론된다. 플래티어 다음 순번인 2선발로 던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